

친환경 건축마감재(몰탈·도료), 기능성 소재 초미분화 사업, 황토응용 신제품으로 사업의 다각화

사업확장에 따른 제2창업 선언으로 공격경영의 기업으로 변신나서



김 준 일 / (주)영부바이오세라믹 대표이사

(주)영부바이오세라믹(대표이사 김준일)은 용도별로 GRADE를 창출해온 원적외선 관련 합성원료 전문생산 업체로서 17년간의 외길을 걸어온 업체이다.

그동안 국내 원적외선 산업분야에서 합성원료 공급의 “대부”로 불리며 원적외선 소재의 국산화와 산업전반에 많은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내 가전3사와 기타 우수 대기업에 기능성 제품개발에 채택되는 등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특히 자체 내 다기능성 소재를 바탕으로 각종 응용제품을 개발하여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 중에 있다. 모든 산업분야가 Global화 되어감에 따라 차별화된 제품으로 승부를 걸고 새해를 기점으로 사업의 다각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주)영부바이오세라믹에서는 기존 원적외선 합성소재와 음이온, 황토, 맥반석등을 이용한 친환경 건축 마감재인 기능성 몰탈과 도료를 개발하여 제품화에 성공하였다. 개발의 주안점은

현장에서 작업성이 용이하고 소재의 함량 개념과 효능, 효과 측면에서도 이상적이며 원가 측면에서도 채산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능면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성 유해물질을 제거함으로써 일반 천연원료와의 차별화 하였고 특히 기존의 시멘트가 갖고 있는 강알카리성 성분의 독성과 냄새, 새집증후군의 개선효과와 인체에 미치는 일반효과, 에너지 절감효과, 항균, 탈취 등의 복합기능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은 물론



기능성 벽지나 모노룸 등의 2중 비용의 대체 효과로도 매우 경제적인 수 있다.

또한 천연소재는 유색이라 그 자체로서의 색상으로 한정되지만 영부의 원적외선 합성소재는 백색도가 뛰어나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색상으로 착색이 용이하며 주문자 요구에 맞춰 소재 선택에 여지를 주기 위해 GRADE도 세분화 하였다.

현재 전국적인 판매 대리점을 모집중이며 자체 내에서 별도 시공팀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각종 기능성 소재를 습식분쇄를 통하여 입자의 균일화와 초미분화로 작업의 안정성과 생산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음이온 소재인 YB-130은 평균입도가 1 μ m 이하의 초미립화로 철저한 Q.C와 고품질화 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된 소재를 공급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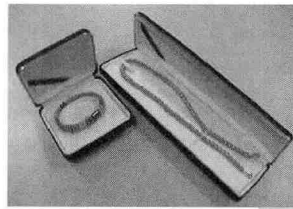
<BIO 지퍼 BAG>

제품으로는 기존의 취급품목 외 황토소재를 이용한 응용제품으로 황토팩, 황토입욕제, 황토미용비누를 제품화하여 내수 및 수출을 통하여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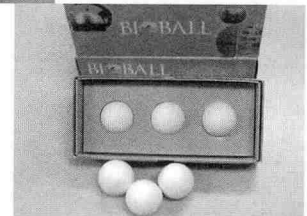
김준일 대표이사는 서울사무실을 기존 건물 2층에서 3층으로 확장 이전하는 등 기업환경을 대폭 재정비하여 제2의 창업마인드를 구축하여 보다 적극적인 판매전략으로 비전을 밝히고 있다.



<기능성 미용비누>



<BIO 음이온 팔찌 · 목걸이>



<BIO BALL>

본 사 :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48-13
연세빌딩 3층
전화 : 02) 415-4511/2
팩 스 : 02) 418-0232

공 장 :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동림리 6-1
전화 : 031) 333-4985/6
팩 스 : 031) 333-4986
홈페이지 : <http://www.youngboobio.com>